

# 계승과 창조로 불사의 새 모델 제시

## 실상사 9월 2일 템플스테이관 건립 기공식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가 불사추진 10여년 만인 9월 2일 중창불사의 첫 사업으로 템플스테이관 기공식을 개최한다. 실상사는 지난 1996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불사 추진 계획을 세웠다. 결국 지난 7월 실상사 사적지 종합정비 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대한 본격 불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상사는 불사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2008년 '도량 불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서 출발해 우리나라 도량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실상사 회주 도범 스님을 비롯해 흥선 스님, 재연 스님, 금강 스님, 故 정기용 성균관대 교수,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 안성수 홍익대 교수, 홍광표 동국대 교수 등과 지역연방 및 변영회장, 신도대표, 가톨릭 신부, 원불교 교부, 귀농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실상사 측은 1년에 네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불사란 무엇인가', '불사에서 담아야 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작금에 이루어지는 불사는 종교의 정신을 제대로 살

리고 있는가'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정신, 생태, 환경, 지역공동체 모색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故 정기용 교수의 제안으로 2009년 '실상사 선언- 불사심조'를 발표했다.

불사심조는 ▷연이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 10여 년간 조사 및 불사추진 토론 학계 전문가 및 지역·종교인 단합 이 시대 불사 계획에 대해 고민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 등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실상사는 불사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바탕으로 2010년 5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거쳐 2011년 '가을 실상사 불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불사계획을 세웠다.

실상사 불사는 ▷대승정법불교 세계관인 인드라마 세계관을 실상사도량으로 형



지난 2011년 10월 실상사 불사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사부대중이 손 맞잡고 불사 성공을 기원했다.

상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들이 인드라마 세계관대로 멋지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부대중수행공동체 ▷절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실상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고 눈뜸으로써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등 네 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실상사 관계자는 "이번 불사는 단순히 전통을 복원하는 것 뿐 아니라 계승되던 전통을 복원하는 것 뿐 아니라 계승되던 전통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는 출가보살,

재가보살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신형 공간 및 출·재가자 영역의 재구성, 경관과 숲,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등으로 표현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상사 회주 도범 스님은 "실상사는 일을 꾸러가는 능력도 돈을 모으는 능력도 없는 곳이지만 중창불사를 추진하는 것은 지리산과 실상사가 꿈꾸는 생명평화를 많은 이들도 함께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소외 이웃에게 작은 보탬될 터”

###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유한진

광주 대표 불교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 생명나눔')는 지난 7월 27일과 8월 17일, 이틀에 걸쳐 '2012 생명나눔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조혈모세포 기증 ▷장기기증에 대해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의 중심에는 유한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32·사진)이 있었다. 유 국장은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만으로도 인생의 큰 기쁨이다. 하지만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이제 불교에 입문한지 1년 남짓 된 새내기이자, 청년 불교활동가이다. 하지만 그가 광주생명나눔에서 일을 맡은 후 치러낸 행사만도 수 십 가지에 이른다. 지난 2월 자비의 1번째 정진기도를 시작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장기 기증 캠페인 10회, 총 8회의 자선음악회, 부처님오신날 나눔행사, 환우가족들과의 영화관람 나들이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진행해 왔다.

"매년 1월에는 환자가족 중 완치한 가족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일명 골수)를 모집해 일치하는 환자가 생기고, 이식을 통해 완치가 되었을 때를 가장 행복할 순간으로 꼽는다.

그가 몸 담고 있는 광주생명나눔은 지난



1998년 창립 때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민간단체보조 공모사업 27곳에 선정된 후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장기기증 및 혈소판 헌혈공여사업, 헌혈은행 등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 또한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와 캠페인, 생명나눔의 집을 개설해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사랑을 전하는 전법단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창립이후 5번째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광주생명나눔은 이제 도약과 좌절의 기로에 서있다. 유 국장은 "1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불교단체의 열악한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광주생명나눔을 통해 불우이웃과 중증환자,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글로벌시대에 맞춰 해외의 어려운 환경 처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보탬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지역의 불교계는 젊은 인재 양성이 화두다. 젊은 세대에서 불교 일을 맡아 하려는 사람이 없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기성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진 국장은 광주불교계의 보물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관의 꿈을 안고 고시공부를 했다는 그이지만 이제 광주불교의 미래를 설계할 불교활동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쓰겠다”

### 전북불교시민연대 8월 22일 후원단 발족, 지역활동 강화

전북불교계 유일한 시민단체인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오종근)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조직이 탄생했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8월 22일 전주관광호텔에서 후원단 발족식을 열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전북불교시민연대의 출범 후 활동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활동소개, 내빈소개, 임원 및 참석자 소개, 비전 제시 순으로 진행됐으며, 후원단 발족식에는 80여 후원인들이 동참했다.

곽익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의 맑은 눈과 자원봉사단의 땀방울에서 지역불교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다"며 "전북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의 지혜를 모아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전북불교시민연대가 되자"고 당부했다.

유지원 공동대표는 "지속적인 생명평



전북불교시민연대는 8월 22일 후원단을 발족하고 새로운 NGO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화운동의 전개와 자연음식을 통한 먹거리 운동, 어린이 청소년 지원사업, 협동조합 운동, 재가자 수행 및 법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NGO 운동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전북불교시민연대는 지역 유일의 불교시민운동 단체로 전

북대 범당 설립 추진,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등 교계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출범한 후원단은 전북불교시민연대의 지역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연대사업과 불교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주여성 올바른 소비생활 정착 위한 교육강좌 개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올바른 소비생활을 안내하고 사기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내강좌가 열린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1~2일 다문화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초청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시민모임대표를 초청해 최근 문제되는 단단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또한 근검절약하는 가정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천연비누 등을 만드는 강좌도 연다.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소비생활은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는 여러 사기 사건들이 다문화가정에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에게 사기 등 피해로부터 예방하기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맛의 고장 전주서 사찰음식 맛본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8월 29~30일 사찰음식 체험전

맛의 고장 전주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8월 29~30일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관에서 '2012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2 전북방문의 해'와 '전주 음식창의도시' 선정을 맞아 음식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장)의 '사찰음식 조리교실'이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스님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 20가지가 함께 전시된다. 또 연잎밥 시식회, 다도체험 등 참가자들이 사찰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빈그릇 운동 등을 함께 전개하고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법진 스님은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전주지역에서 이번 사찰음식 홍보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규모의 음식관련 행사참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한국의 우수한 식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전주 발효과학연구소에 사찰음식이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전주 비빔밥 축제에 사찰음식 특별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 신부님 출가일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에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